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더

7장 에스더 8장, 9장 : 결말

01

플롯구조

“문학성을 띤 작품으로 살펴보면 플롯구조

6 결말(8-9:19)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이 자신들의 적을 죽임

결말은 최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 혹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모색하는 것으로 행동적이며 모든 긴장이 해소
가 된다. 해결에는 행동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 ‘반전(peripety)’
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가 반전의 대표적인 예로 에스더 8:1-9:19에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뻔 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

02

각 절 설명

8장

▶ 하만이 죽은 후 이제 이야기는 이전에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왕의 조서와 죽을 유대인의 운명을 어떻게 돌려
놓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하만이 죽은 후 왕은 하만을 에스더의 원수로 여기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준다. 즉, 하만의 집의 재산과 사람에 대한 생사여탈권과 모든 권리를 에스더에게 준 것이다. 그
리고 왕에게 모르드개가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를 말하고 왕의 허락으로 모르드개는 왕의 앞에 오게 되었다. 그리
고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줌으로서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모르드개에게 주었다. 왕은 전적으로 모르
드개를 신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구해 준 충실한 신하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의 삼촌이기 때문이
다. 6장이 하만과 모르드개의 입장의 역전에 대한 예고편이라면 왕의 반지를 받음으로 이제 완전히 하만과 모르드
개의 입장이 역전되었다. 즉,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개는 오히려 하만의 지위에 오르게 되
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모르드개는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되었지만 아직 왕이 내린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운명은 여
전히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왕에게 하만이 유대인을 진
멸하라고 내린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 여기서 3절은 에스더의 행동의 의도와 행동 자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고 에스더의 말은 5절부터 나온다. 여기서 에스더의 엎드리는 행동은 왕에게 간청을 하기 위한 행동이다.

1절 그 날 아하수어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
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 에스더의 말에서 보면 그녀는 지금 왕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호의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에스더의 말에서 보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라고 3중적으로 자신에 대한 호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조서의 책임이 왕이 아니라 하만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 조서를 허락한 왕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리고 유다인은 자신의 민족이며 친척임을 강조한다. 이런 에스더의 간곡한 부탁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저사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라고 한다.

한 번 반포가 된 조서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능력과 지혜대로 유다인을 보호할 조서를 써서 발표하라는 것이다. 이런 왕의 태도는 이전에 하만의 요청을 들어줄 때처럼 일 자체에 무관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왕은 현재 에스더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 외의 일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유다인들은 죽을 뿐 했고 또한 살고 원수 갚을 기회도 얻게 된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7절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 왕의 승인을 받고 모르드개는 하만처럼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주소를 썼고 각 지방으로 전달을 하였는데 화자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8:9-10절은 3:12, 13, 15절의 행동들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8장에서 좀 더 빠르고 권위있게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왕의 말을 타는 역졸이라는 설명을 두 번이나 첨가하고 있다.



9절 그 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10절 아하수어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날인 12월 13일 하룻 동안 유다인은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을 치려는 세력은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다. 이 명령은 3:13절의 “12월 13절 하룻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하만의 명령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제 공격하는 사람과 공격당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다. 마치 신명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동해보복법을 연상시킨다. 다만 다른 것은 8장에서는 조건이 붙는 것이다. 3:13절에서는 유다인이면 무조건 죽였지만 8장에서는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만 공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위권이지 결코 공격권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위권을 허용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 그리고 모르드개는 이제 정식으로 왕의 신하가 되어 가장 권위있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왕을 보좌하게 되었고 이런 모르드개의 영전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수산성도 기뻐하였다고 말한다. 유대인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유대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 시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로 여기서도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살길을 찾은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되기까지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려면 12월 13일에 유대인을 공격하지 않으면 된다.



15절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 8장에서 조서를 통해 유다인들에게 저항할 권리를 반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하는 것으로 끝낸 뒤 9장은 시간이 흘러 12월 13일이 되었다. 저자는 이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즉,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이라고 설명한다. 화자가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수비를 단단히 하므로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거기다 모르드개로 인해 유다인들을 돕기까지 하게 되었다. 4절은 왜 모르드개 때문에 유다인을 돕기까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즉, 모르드개의 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두려워 유다인을 도왔다는 것이다.

9장

1절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4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 유다인들은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한다. 이 문구는 조서에 기록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도륙하고 진멸한다는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5절은 일종의 평행법으로 같은 사건을 비슷한 말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6절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죽인 사람의 명단이다. 특히 하만의 열 아들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이들이 에스더의 손에 주어졌지만 그대로 살려두었다 이 때 죽인 것으로 보인다.



6절에서 개역개정 번역은 ‘또’라고 하여 앞의 사건이 있고 연속해서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바브 연속법이 아니라 해설을 하는 구문으로 수산이 먼저 나와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을 하면 “...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유다인이 도성 수산성에서는...”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진멸하였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말함으로 단순히 재산을 위해 죽인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도 재산 탈취를 미끼로 걸었던 하만의 행위와 대조가 되며 이들의 전쟁이 순수한 방어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스더는 수산궁에서 500명을 죽인 것과 하만의 아들 열 명을 죽인 것을 왕에게 보고 하였다. 왕의 말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진멸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대표적으로 수산궁과 하만의 아들만 언급한 것이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다시 소원이 무엇인냐고 묻는다. 이것을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지나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왕의 말에 에스더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조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래서 수산에서는 하루 더 살육이 이루어졌고 그 수가 300명이라고 하였다. 왜 이런 요청을 에스더가 하였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측하기는 아직 수산성에 유다인에게 반감을 가진 하만의 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고 그들이 유다인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의 이 요구를 복수를 위한 지나친 학살로 보고 에스더를 비난하는데 이런 해석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은 것은 모르드개를 매달려는 것과 대조가 되며 하만의 운명과 동일한 것을 표현한다. 하만의 아들들은 유다인을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 7절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 8절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 9절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 10절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 11절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15절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 본문의 저자는 왜 수산궁에는 15일에 부림절 축제를 지내고 다른 지역은 14일에 부림절 축제를 지내는 지에 대한 원인적 설명으로 해석한다. 즉, 16-17절에서는 각 지방에서는 12월 13일에 조서대로 하고 행하여 75000명을 도륙하고 14일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18절에서 수산성에는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19절에서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명절로 즉, 정기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고을고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기념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